



THE GOSPEL NEWS

재일대한기독교회
선교 110~120주년
포 어
함께 하는 생명의
장막을 넓히자

1963년9월20일 第3種郵便物認可 (毎月一日発行)

2022년 6월 1일 (수) 제 817호

발행처 **복음신문사** (1부 100엔)
〒169-0051 東京都新宿区西早稲田2-3-18
☎03-3202-5398 info@kccj.jp
발행인 / 나카에 요이치·편집인 / 김 병 호
인쇄소 靑丘文化社

어린이주일
설 교

어린이 주일 메시지

<마가복음 10:13~15>

김 신 야 목사 (신도위원장 / 요코스카 교회)



1. 예배당에 어린아이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예배시간에 아이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모든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허락됨을 큰 은혜로 느낍니다. 그리고 예배시간에 어른들이 <아멘> 이라고 할 때에 큰 소리로 함께 <아멘> 이라고 하는 어린 아이들의 소리를 들을 때면 마음 속 깊은 곳에서 포근한 감정이 솟아나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목소리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으로 느끼게 되는 시간입니다.

2. 귀에 들려오는 <전쟁> 소식을 접할 때 우리들은 그런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커다란 폭력이나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호언장담으로 인해 산산조각 나는 경험을 날마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들이 “어느 편이냐”, “어느 쪽이 옳은가” 라는 사람의 논리를 늘어놓기만 할 때, 혼자 눈물 흘리며 무거운 짐을 끌고 가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저 뒷 편으로 밀어내 버리는 삶을 살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상자와 사망자 수, 폭력의 잔인함을 고발하는 목소리, 고뇌속에서 일그러진 사람들의 수많은 얼굴들을 화면 속에서 보고 듣는 중에 상황을 분석하는 [기호]에 휩쓸려 모르는 사이에 아픔을 가진 존재들의 목소리를 깊이 받아들이는 것이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목소리에서 멀어져버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예컨대 1923년에 일어난 관동대지진시 수 많은 조선인들이 학살당했을 때, 정부와 요시노사쿠조 (吉野作造) 동경제국대학교수, 한국YMCA 청년들이 조사한 결과가 각각 578명, 2613명, 6661명으로 큰 차이로 다르게 나왔다는 것은 [바꿀 수 없는] 인간의 존엄에 대한 차이가 담겨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감성의 차이는 현대사회에도 연결이 되어있다고 보여집니다.

현대 일본 사회에서 부모의 폭력으로 생명을 잃은 어린이의 흐느낌, 코로나로 인해 어렵게 살면서 자식을 학교에 보내려고 장학금을 신청하는 부모들의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약한 사람은 살아서는 안 되는가요?>라는 목소리 (2021년에 <아시나가기금>이 실시한 양게이트에 실린 소리)에 담긴 깊은 절망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소중한 소리로 와닿지 않고 부모들이 자기를 ‘쓸데없다’고 생각할 정도까지 어려움이 깊어지고 있다면 [바꿀 수 없는] 인간의 존엄이 이렇게 훼손된 시대야 말로 우리들은 예수님의 몸부림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3. <예수께서 먼저 주심을 바라고> 사람들이 데리고 온 어

린 아이들이 어떤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었는지 성경은 아무 것도 밝히지 않았습니 다. 그러나 <먼저 주심을 바라고>라는 표현안에 어린아이들과 사람들이 지니고 있었던 고뇌를 읽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이들과 같이 예수님 곁으로 가려고 할 때에 제자들이 꾸짖었다 했습니다. 사람들을 아래로 보는 그 태도와 거만함, 권위 그리고 힘 등에 대해서 제자들이 많은 착각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크냐>고 싸우는 이야기 (마가9:33-37)에 이미 그 사정이 적혀 있습니다. <메시아>를 이 세상의 권력과 동일시하던 제자들은 예수님께 다가가려고 한 사람들과 아이들을 건방지다고 생각 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학자에 의하면 근대사회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아이들을 부족하며 쓸모없고, 값없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자들도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당연한 것으로 알려진 제자들의 그 태도에 대해 예수님은 노하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노하심 이야말로 그 후의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 자의 것이니라>라는 말씀을 일직 선으로 연결하여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권력이 꿈꾸는 체제와는 전혀 다른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주변에 놓인 사람들이 오히려 <가운데>(마가9:36, 마태18:2등)로 초대받는, 중심과 주변에 대한 사람들의 상식을 역전시키는 구상이었습니다.

4. 부족하고, 쓸모없고, 값없는 존재로 인정받거나, 혹은 자신을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몰린 사람들이야 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바꿀 수 없는] 주인공으로 보시고 <가운데>에 있어야 할 존재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들은 자기 자신이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제자들처럼 그런 존재를 배제하는 인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쓸모 없는 존재라고 생각이 될 때 예수님께서 한 가운데로 초대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자신이 그런 존재의 곁에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을 예수님처럼 <가운데>에 제대로 초대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자가 되십시오. 이 <전쟁>시대에 때로는 예수님을 믿고 절망에서 벗어나고, 때로는 자기의 교만함을 자문하면서, 인간의 존엄을 위하여 온 몸으로 애쓰신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원하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이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십시오.

韓日対照讃頌歌販売



韓国の新讃頌歌版です。交読文も韓日対照で掲載されています。

- B6版変型・1483ページ
- 価格: 2,500円(消費税・送料込み)
- ※お求めは総会事務所へ

講壇掛・ストール販売



在日大韓基督教会ではKCCJのロゴ入り講壇掛・ストールを制作・販売しています。

価格は講壇掛・ストール共4色セットで各1万円(約半額)

講壇掛・ストール両方ご購入の場合は1万5千円です。※お求めは総会事務所へ

관서지방회

제73회 정기총회 개최

김청곤목사 선교사 가입식도 거행

2022년5월3일 재일본한국YMCA 9F홀에서 총대 103명중, 78명이 참석하여 제73회 관동지방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개회예배는 신대영장로의 사회로 이명충목사가<교회의 생명>(요한복음14 : 6)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각종 보고 후 각 교회 장로 청원이 승인되었다(西新井 1名、東京東部 2名、品川 1名、川崎 1名、横浜 3名).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 어려움을 버티면서 선교의 등불을 지켜왔던 오오미야교회, 히타치교회가 폐쇄되어야만 하는 현실을 깊은 슬픔으로 받아들였다.

신년도예산은 10,028,000엔(그 중6,588,000엔이 총회부담금)으로 승인되었다.

현의안 심의가 마무리된 후 이번 회기 중에 은퇴하는 홍성완목사와 이성전장로의 인사가 있는 후, 지방회 장로회로부터 꽃다발을 전해 감사를 표하였다.

또 김성태목사가 청년활동의 활성화와 신도간의 연결을 강화하기 위한 신도위원회 활동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폐회예배와 더불어 김청곤목사 선교사 가입식이 거행되었다.



관서지방회

제73회 정기총회 개최

3명의전도사가 배출되어 주께 감사

2022년 5월 5일(목), 2년만에 대면방식으로 관서지방회 정기총회가 오사카교회에서 총대 73명 중 63(위임 2)명의 출석으로 개최되었다.

개회예배는 부회장 배양일장로의 사회, 회장직무대행 박영자목사의「하나의 무리가 된다」(요10 : 16)라는 설교가 있는 후, 정연원목사의 집례로 성찬식을 가졌다.

이어서 가진 전도사 인허식에서는 정시온(大阪), 고대한(京都), 한선영(大阪) 3명의 전도사가 배출된 것을 모두가 주님께 감사드렸다.

또한 지방회 부회장직으로 수고하다가 은퇴한 유정근, 김도영, 김성원장로에게 공로패를 증정해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주요 결의사항으로는 각 교회의 장로증원 청원의 승인, 교토히가시야마교회의 '교토시온교회' 로 명칭변경 승인, 신년도 예산안 승인 등이 가결되었다. 또한 다음 3가지 사항과 관련된 관서지방회 규칙개정안이 승인되었다. 그 내용은 ①재해시의 온라인 결의를 승인하는 등, 회의의 조치에 관한 문제 (제2장 정기총회, 제6장 임직위원회), ②부서와 부원에 관한 문제(제7장), ③교회 이전에 관한 문제(제4장)이다.



중부지방회

제59회 정기총회 개최

이성준목사 안수식도 거행

2022년 5월 3일 나고야 교회에서 중부지방회 제59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개회예배는 부회장 김승정장로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지방회장 김명균목사가 '한탄의 원인' (예레미야 8 : 18~22)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후 최화식목사의 사식으로 성찬식이 거행되었으며, 나고야교회 이성준목사 안수식이 거행되었다.

회의에는 총대원 26명 중 24명이 참석하였으며, 총회장 나카에 요이치 목사로부터 축하 인사가 있었으며 총회 신도위원장인 양양일 장로가 활동에 대한 어필을 하였다.

각종 보고 후 나고야 교회 장로 2명 증원 청원, 기후교회 선교비 보조 청원과 박태원 목사와 김지일 목사의 무임소 목사 연장과 14,050,927엔의 2022년도 예산안이 승인됐다.



서부지방회

제38회 정기총회 개최

한승철부회장이 회장대행

2022년 4월 29일 고베교회에서 서부지방회 제38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일부 총대의 ZOOM 참석을 인정한 후에 대면으로 개최되었다. 개회예배는 지방회장 양영우목사가 '축복의 사람' (창세기 12 : 1-3)라는 제목의 설교 후,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해 석상헌금을 드렸다(42,000엔). 그리고 전 총대 31명 중 20명(ZOOM 출석 포함)의 참석으로 개회선언이 이뤄졌다. 서기에 의해 소천자 명단이 낭독되었고 최형철목사가 대표로 기도를 올렸다. 계속해서 나카에 요이치 총회장의 인사를 받았다. 이번 38회 서부지방회 정기총회는 코로나로 인한 만연 방지를 위해 다른 내빈들은 인사문을 보고서에 신고 인사를 대신하였다

주요 결의사항은 2021년도 결산·2022년도 예산안(9,019,835엔) 심의 승인, 회장 사임으로 인한 한승철부회장이 회장대행으로 취임, 임시당회장의 승인 및 각 현의안이 승인되었다.

차기 정기총회 일정과 회장 선정은 임직원회에 위임하고 정기총회가 폐회하였다.



福音新聞7月号休刊のお知らせ
都合により2022年7月号の福音新聞は休刊いたします。

서남지방회

제72회 정기총회 개최

조은주전도사 인허식도 거행

4월 29일 후쿠오카 교회에서 제72회 서남지방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총대 22명 중 18명의 출석(온라인 출석 2명 포함)이었다.

개회 예배에서는 조은주전도사(우베교회)의 인허식을 거행하였으며, 주요 보고에는 쓰시마은혜전도소가 교회당 신축을 위해 2300 평의 땅을 구입했다는 것에, 서남 지방회는 이것을 과제로 삼아 함께 협력해 갈 수 있는 희망을 나눌 수 있었다.

내빈의 인사(일본기독교단 규슈교구의 쿠사카베켄지목사, 니시오카 히로요시히로목사, 일본기독교회 규슈총회 사와 마사유키 목사, 황남덕 동아시아 평화 센터 주사)를 받았다.

결의에는 3가지를 승인했다. (1)서남 지방회 규칙 개정안 승인. (2) 장로 선출 청원(고쿠라 1명, 후쿠오카2명, 하카타2명) 승인. (3)예산안 9,596,322円 심의 하고 승인했다.



고베교회

봄의 음악전도 집회 개최

새예배당에 트롬본 연주자



2022년 5월 15일(주) 오후2시에 고베 교회에서 트롬본 연주자 카메이 레이쥬 씨와 피아노 반주의 타카하시 레이코 씨를 초청해 서부지방회 장년회 공동으로 개최한 봄의 음악전도 집회가 개최되었다.

고베교회에서는 예년 봄철에 찬송과 음악에 전도집회가 열렸지만, 코로나19 감염 만연방지로 인해 2020년 이후 중단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3년 만에 새 예배당에서 첫 음악 집회를 가지게 되었다. 카메이씨는 현지 코베시 효고구 출신의 크리스찬이다.

교통사고로 악기를 잡을 수도 볼 수도 없는 고난과 절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회복되었다는 간증도 있었다. 지금은 국내의 복음전도를 위해 연간 150여회의 콘서트에 출연하고 수많은 상도 받았다. 또한 7m가 넘는 천장의 새 예배당에서 찬양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트롬본의 우아하고 섬세한 음색이 예배당에 울려 퍼졌다. 한세일목사의 짧은 메시지와 함께 찬송가 등 총 10곡이 연주됐다. 연주자와 참가자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훌륭한 음악전도 집회였다. (보고:윤성철장로)

총회 제1회 상임위원회 개최

온라인으로 개최되어 상임위원 21명 참가

제56회 총회기 제1회 상임위원회가 2022년4월24일에 Zoom 회의로 개최되어 상임위원23명 중에 21명, 특별위원장 2명이 참가하여 각종 보고 및 현의안 등을 심의하였다.

심의되어진 주요한 현의안은 다음과 같다.

- (1) 제56회 정기총회 회의록 승인의 건은, 수정 및 정정사항이 있으면 제출 받아 차기 상임위원회에서 확인하고 제57회 정기총회에 제출하기로.
- (2) 「**仁道基金**」에 관한 건은, 임원회가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차기 상임위원회에 제안하기로.
- (3) <재일대한기독교회 사회복지연맹>의 해산에 관한 것은, 장기간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임원회에서 검토하여 계속심의하기로.
- (4) <난민/이주 노동자 문제 그리스도인 연합회>에서 요청한 KCCJ 전국교회에 앙케이트 조사 협력에 관한 것을 승인.
- (5) <광서지방회 규칙 개정>에 관한 건은, 헌법위원회에 회부, 제57회 정기총회에 상정키로.
- (6) <구제기금 규칙개정>의 건은, 개정안을 헌법위원회에 회부하고, 제57회 정기총회에 정식으로 상정키로.
- (7) 신도위원회의 <예산 증액>요청의 건은, 현실적으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필요 경에 관해서는 중간사와 의논하면서 추진하기로.
- (8) 차기 상임위원회는 2022년10월10일(월/휴) 11:00, KCC (大阪)에서 대면으로 개최하기로 하다.

관서지방회

정수환목사 위임식 거행

新居浜그레이스교회에 제5대 목사로 부임



지난 5월5일, 서부지방회 나이하마그레이스교회에서 정수환목사 위임식이 거행되었다. 코로나 감염 속에서도 서부지방회 각 교회에서, 일본기독교단 시코쿠교구와 인근 일본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거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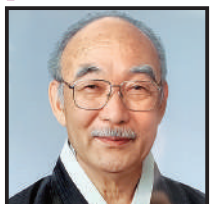
예배는 임시당회장 나가에요이치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설교는 양영우목사(무코가와 교회)가 <같이 일하는 목회자> (마가3: 13~15)의 제목으로 하였다.

위임식은 서부지방회장 대리 한성철목사의 사식으로 진행되어 소개와 서약, 기도 후 정수환목사가 나이하마그레이스교회의 담임목사가 된 것이 선포되었다.

금번 위임받은 정수환목사는 1964년 일본에서 출생하여 長崎総合科学大学, 神戸改革神学校를 졸업하였으며 한국과 캐나다에 어학 연수를 한 후, 2003년 서남지방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아, 오리오교회 도요하시교회를 목회 한 후, 금번 나이하마그레이스교회에 부임하게 된 것이다.

金信煥 명예목사가 소천

제일2세 목사로서 한국정부로부터 훈장 받기도



제38회 총회기(1985년~1987년)의 총회장으로 역임하였던 広島教会의 김신환목사가 지난 2022년5월16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36년간 목회하였던 広島教会에서 장례식을 거행하였다. 향년90세였다.

故·김신환목사는 1932년 愛知県 豊橋市에서 제일2세로서 출생하여 同志社대학 신학부, 대학원을 졸업하고, 1960년에 목사 안수를 받아 大阪築港교회의 첫 목회를 지나 1966년에 広島教会에 부임하여 2002년 정년 은퇴까지 목회하였다.

한국의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캐나다 토론토 나스신학대학원에서 신학연수를 하였으며, 히로시마 민간의 <한국학원>에서의 활동, 또한 한국의 피폭자를 히로시마의 병원으로 오게 하여 치료를 받게 하는 활동에 힘을 기울였다. 한국 정부로부터 '민족교육 및 한국 피폭자 지원활동' 등의 공적으로 <목련장>, <무궁화장>등의 대통령 훈장을 받기도 하였다.

<2022年才二主日献金> (2022年5月23日現在)			
三沢教会	15,000円	小倉教会	25,000円
沖繩教会	10,000円	横須賀教会	13,000円
長野教会	5,000円	横浜教会	20,000円
大阪築港教会	5,000円	豊橋教会	28,000円
福岡中央教会	6,000円	大阪教会	173,070円
堺教会	18,000円	折尾教会	5,000円
品川教会	5,000円	東京教会	30,000円
名古屋教会	65,600円	博多教会	2,000円
武庫川教会	20,000円	京都教会	30,000円
浪速教会	5,000円		
東京中央教会	17,000円	合計	497,670円

공개강연
연재 4

KCCJ · CCJ선교협력위원회 공개강연회(2021년12월9일)

죄책(罪責)을 지고 주님께로 (4)

吉高 叶 (요시다카 카노우) 목사(일본NCC의장 / 일본침례연맹市川八幡教会)

3. <평화의계명> 을 마음에 새김

(4) 역사의계명을파괴하는자민당개헌안

자민당 개헌 초안을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민당은 이 개헌 초안으로, 또 몇 번이나 선거를 하면서 아베 내각 이후는 승전하고 있습니다. 자민당쪽에서 보면 개헌안은 이미 만들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개헌 초안의 특징과 사상을 확인해 보면, ①전문 : 일본 고유의 역사와 문화, 천황을 모시는 국가, ②천황의 원수화(신의 나라의 위치 매김), ③국기·국가에의 존중의무(천황 찬미), ④원호의 명문화(천황의 시간 지배), ⑤자위권과 자위군의 명기,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⑥선거권은 일본국적자만(신민의 나라), ⑦인권의 제한, 공익과 질서를 우선(신민의 의무), ⑧정교 분리 원칙의 완화, 신도 의례를 사회 의례로서 생활화, ⑨가족 존중(좋은 가족상 부활), ⑩긴급 사태 규정 신설, ⑪헌법 개정 요건 완화:과반수에 의한 발의→유효투표의 과반수에 의한 국민투표, ⑫국민의 헌법 존중의 무, ⑬인권에 관한 근본적 규정을 전면 삭제.

즉 자민당 개헌 초안은, 다음과 같이 모두 <再定義> 하려고 한다.

- 종교적 독자성을 갖게 하여 <국가>를 再定義.
- 종교적 권위에 의한 정부(국가)하에서 「국민」을 再定義.
- 국익을 위한 <인권>을 再定義하고, 국익을 위해서 <전쟁> 을 再定義.

현재 헌법의 기본적인 입장은 <전쟁은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만, 자민당 개헌안에 의하면 <해도 좋은 전쟁>이나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전쟁이 있다>라는 것으로, 지금의 헌법 삼원칙과 <근대 입헌주의>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전에 목회를 하고 있던 千葉県 松戸市の 栗ヶ沢教会 바로 옆에 있는 麗澤大学の 캠퍼스에서 2007년6월30일, 당시의 久間章生 방위대신이 행한 발언입니다. 「미국은 소련이 일본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원폭을 長崎에 떨어뜨렸다. 비참했지만 그것으로 전쟁이 끝났다고 머리도 정리하고, 지금은 <어쩔 수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다.> 고,

長崎에서 선출된 중의원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발언을 했다는 것으로 広島·長崎의 피폭자 단체로부터 항의가 일어났으며, 久間씨는 대신을 사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발언의 무서움은, <○ ○를 위해서는 죽어도 어쩔 수 없는 생명이 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야스쿠니(靖国) 신사 문제에 눈을 돌리면, <나라를 위해 죽는다>는 것을 국가가 의미를 붙이고 가치를 부여하는 <영령(英靈) 사상>이며 <야스쿠니의 사상>입니다. 우리가 <反 야스쿠니>, <신교의 자유>, <정교분리>를 지키는 싸움을 계속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것에 얽드려서는 안된다>는 주된 고백의 문제뿐 아니라 <해도 좋은 전쟁이 있다고 하는 사상>, 「죽어도 어쩔 수 없는 생명, 죽어도 좋은 생명이 있다고 하는 사상>, 「인간이, 사람의 생과 死에 대한 의미를 정하는 사상> 이기 때문에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민당 개헌 초안이 노리는 것은, 천황제가 가지는 종교적 기능을 확실히 의식하고 국민의 생명의 의미를 再定義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천황제가 부드러운 옷차림을 하더라도 이 본질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천황제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4. 천황 교대에서보는 위험성

2016년8월8일, 천황 TV 메시지 <상징으로서의 역할에 관한 말>에서 시작하여 2020년 11월 8일의 <즉위의 예> 에 이르는 천황 교대, <아키히토(明仁) 천황>부터 <나루히토(徳仁) 천황>으로의 교대라는 것은, 明仁천황이 재위한 지금까지의 30년간에 행해진 <상

징> 으로서의 행위와, 그것이 일본 사회에 가져온 것이 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0년간은 일본 교회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明仁천황 즉위(1989년) 이후, 천황의 공적 행위는 비약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재해지 방문은 국민과의 일체감 환상을 낳았습니다. <국민에게 다가가는 천황> 상은 더욱 침투해, 천황의 인기와 존경도는 크게 상승했습니다. <明治>로부터 1945년 패전까지의, <위에서 강제로 주어진 권위>로서의 천황과는 달리,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아 황실과의 일체감 환상을 만들어낸 천황상은, 裕仁천황 이상으로 明仁천황에 와서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본래 <일본 국민의 통합>을 상징해야 할 <상징>이, 천황의 행위로 인해 국민 쪽이 하나로 통합되는 <능동적 상징 기능> 이 강해져 국민주권은 애매한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의 가해자라고 하는 역사적 반성은 선반위에 올려놓고 <희생자>를 애도하는 행위를, 明仁천황이 계속함으로써, 마치 식민지 지배자로서 역사가 <해결> 되고 <일단의 결착을 보았다>는 것처럼 국민에게 떠올리게 하는 기능을 완수해 왔습니다. <호헌·민주주의 천황> 으로서의 이미지를 자아내고, 국민을 안심시키고는 사랑을 받았습다. 그러나 현실에는 일본의 침략 가해자 책임을 포 함하여 국민의 대표인 정부에 의해 결국은 明言되지 않고, 사죄도 하지 않은 채, 30년을 거듭한 것입니다. 明仁천황이 죽은 자를 애도하고 비극을 위로하는 것 같은 행동에 있어서도 책임을 지는 당사자성은 누락되었습니다. 그 결과 일본 사회에서 전쟁책임에 대한 추궁과 역사인식에 있어서는 역행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990年代에는 河野담화나 村山담화에서 볼 수 있듯이, 침략 가해의 역사를 인정하는 굴곡이 있으면서도 결과적으로 거기에의 반동은 큰 것이었으며, 지금도 침략 가해의 역사에 접하는 것은 <일본의 명예와 자랑을 해치는 것> 으로서 격렬하게 반발이 일어나, 침략을 당한 아시아에 대한 이픔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태도는 오히려 깊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明仁천황이 반복해서 말한 <평화와 번영의 戦後> 라고 하는 정형구는, 戦後에도 일미군사 동맹에 의해 전세계의 전쟁에 추진 협력을 하였던 戦後 일본의 실태를 보이지 않게 하는 역할을 완수했습니다.

원래, 2016년8월의 천황 메시지는, 고령으로 <공적인 천황의 임무> 가 곤란하게 되었기 때문에, <생전 퇴위> 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한 면으로는 <제2의 인간 선언>인 것처럼 들렸고, 그것이 널리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그것은 <국권에 관한 권능이 없다>는 천황이, 국민의 넓은 지지를 배경으로 하여 사실상 국회에 법개정을 요구한다는 헌법의 규정을 일탈한 <정치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공공방송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는 것 자체가 <공인> 으로서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천황이 일체의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 초 법규적인 존재로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아도 심각한 위헌 행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9년에 거행된 천황 <교대>에 관한 의식(儀式)은 어이 없게도 모두 天孫 강림 신화에 근거한 종교적 의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천황의 제사권을 세습하는 행위가 천황의 종교적인 권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해지고, 게다가 그들이 국가 행위, 공적 행위로서 행해진 문제는 매우 중대한 것입니다. => 계속